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76

2017. 3. 26

2017년 주님의교회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
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39

오늘의 주요기사

- 2 종교개혁 이야기
- 3 영화로 성경읽기
- 4 청빙위원회 특집
- 5 선교 이야기
- 6 성지순례
- 7 목회칼럼
- 8 아가나들이

교회 일정

- | | |
|----------|---------------|
| 4/2(주일) | 성찬주일 |
| 4/9(주일) | 종려주일 |
| 4/10~15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 4/14(금) | 성금요일 |
| 4/16(주일) | 부활주일 |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멀리 아론의 무덤이 있는 호르산이 보이는 광야

그들의 나지막한 노래

평화와 일치를 꿈꾸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셨을까, 멀고
험한 광야가 낮설지 않다. 기실, 예
수님이 가셨던 그 모든 길은 숲이
있어도 광야였고, 지붕이 있어도 들
판이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도
홀로 계셨고, 홀로 있어도 모두와
함께 하셨다.

침묵은 때로 소리보다 강하다. 단순
함은 때로 복잡함보다 강하다. 말이
많은 기도보다 침묵의 기도가 더 강
하다. 그들의 노래는 그래서 마음을
울린다. 1940년 개신교 목사의 아들
로 태어난 스위스 출신의 한 젊은이
가 결핵을 앓으며 서로 섬기는 공동

체를 꿈꾸었다.

그 청년은 스위스에 가까운 프랑스
의 한 시골 마을에서 제2차 세계대
전 난민들을 구호하기 시작했다. 우
물에서 물을 길었고, 옥수수가루로
죽을 끓였다. 1949년 이 청년을 포
함한 일곱 명이 공동생활을 하기로
서약했다. 그들의 출발은 이처럼 소
박했다.

지금은 이들의 서약에 함께한 백여
명의 수사들이 이 공동체를 섬긴다.
30여 나라에서 온 이들은 기부도 선
물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생활

하고 어려운 이를 돕는다. 이들은
교파의 경계를 넘어 모두 연대하는
사회, 하나가 되는 생활을 꿈꾼다.
매일 전 세계에서 오천 명이 넘는
순례자가 이곳을 찾는다.

이들이 함께 부르는 단조롭고 낮은
노래는, 늘 평화와 일치를 소망한
다. 해마다 주님의교회에서 부활절
에 올리는 예배드라마에서 우리는
이들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 이들은
우리는 떼제공동체라고 부른다. 그
들에게 나를 위한 기도는 없다. 그
들의 기도는 모두, 남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이다. **함즐함울**

사순절 메시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병정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성난 군중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하나님이 죽었다!”

왜 십자가입니까? 주님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는 로마를 향해 반역하는 자를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기에 자국민에게는 행하지 않는 형틀입니다.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나무틀에 달아놓고 피가 쏟아지고, 물이 흐르도록 하는 형틀입니다. 벌거벗깁니다. 온 세상이 보도록, 인

간의 속살을 드러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끄러움의 죽음입니다. 거짓과 불법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로마에 반역을 꾀했다.” 어떻게 로마에 반역을 꾀할 수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반역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드는 무리들을 데리고, 어떻게 로마에 반역할 수 있습니까? 자신은 아무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반역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근본을 회복하고 본래 정신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떻게 반역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는

데, 어떻게 반역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신다.”, “죄에 대해 뻔뻔함이 아니라 애통함을 가져야 한다.”, “결코 폭력이 아니라 온유함을 가져야 한다.”, “원수의 생명이라도 긍휼히 여겨야 한다.”, “마음에 청결함으로 거짓과 탐욕과 시기과 질투를 물리쳐야 한다.”, “평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며, 핍박을 받더라도 보복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여기에 무슨 반역이 있습니까?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서라도, 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위험을 무릎 쓰고라도 강도 만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에 발버둥 치셨습니까? 억울해서, 두려워서, 발버둥 치셨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까지 반역이 아니라고, 형을 거부했습니다.

왜 기독교는 이를 기억합니까? 왜 이렇게도 부끄러운 십자가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죄악의 권세를 이용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실 것입니다! 다시 사심으로 모든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찬송입니다.

박원호 담임목사

종교개혁 이야기 2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1.피에르 발데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2~16세기까지 유럽에 가장 널리 확산되고 오래 지속되었던 개혁운동으로는 발도파(Vaudois), 롤라르파(Lollards), 후스파(Hussites)가 있다. 종교개혁 이야기 두 번째부터는 이들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다.

2015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으로서 처음으로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발도파 교회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예전에 가톨릭이 이단으

로 정죄하고 박해했던 발도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죄하고, ‘비그리스도교적이고 때로는 비인간적 태도와 행위를 한 가톨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기를 청했다.’

발도파는 ‘피에르 발데스(Pierre Valdes)’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는 12세기 프랑스 리옹의 상인이었으나, 어느 유랑 음유시인이 노래한 성인 알렉시우스(Alexius)의 행적을 듣고, 그의 이상적인 단념과 절제의 생활에 감동을 받아 청

빈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지만 라틴어 성경을 혼자 힘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두 명의 사제에게 성경책과 몇몇 교부 저작의 요약본을 번역하여 달라고 부탁했고, 이 책들의 많은 부분을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후, 사도들처럼 복음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온전하게 되려거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나를 따르라(마 19:21)’를 삶의 모토로 삼아,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후 자신은 거지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리옹과 그 주변 지방으로부터 급속하게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다.

발데스를 따르는 대부분은 평신도였는데, 자신을 단순히 ‘가난한 자’라고 부르며, ‘금이나 은을 소유하지 말 것’이며

> 3면에 계속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100

記念寶石(기념보석, jewel)

에봇 어깨받이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출애굽기 39장 7절)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보석은 색채와 광택이 아름답고 산출량이 적기 때문에 장식용 등으로 귀중히 여겨지는 광물이다. 한편 진주나 산호, 호박 등 무기광물이 아닌 것도 이에 속한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보석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존

귀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대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의 좌우어깨에는 커다란 호마노 보석 두 개가 달려있었으며 호마노에는 출생순서대로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記(기록할 기) : “말하다. 분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言(말씀 언)에 “나. 자기”를 뜻하는 己(몸 기)를 합쳐 【말의 분명한 의미를 남기기 위하여 내가 글로 적어 기록한다】라는 문자가 되었다.

★念(생각 념. 월 념) : “순간적인 시간”을 포착한 今(이제 금)과 “심장”을 상형화한 心(마음 심)을 결합시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생각이

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寶(보배 보) : “집이나 지붕”을 상형화한 宀(집 면. 갓머리)과 “귀한 것”을 대표하는 玉(구슬 옥)의 동어어 玉(임금 왕)과 “질그릇. 도자기”를 뜻하는 缶(장군 부)와 “돈. 재화. 패물”의 뜻이 있는 貝(조개 패)의 결합체로 【집안의 옥으로 된 도자기에 패물이 가득 담겼으니 보배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石(돌 석) : “언덕이나 작은 산”을 뜻하는 厂(언덕 한. 민엄호 엄)에 “둥근 모양”을 상형화한 口(입 구)를 결합시켜 【언덕아래 굴러다니는 둥글고 흔한 것이 돌이다】라는 의미가만 들어졌다.

함줄함울

> <성경-한자로 풀어보기>가 연재 100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관심을 갖고 연재를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손 43



손을 통해 전해져오는 따스한 온기로 사랑을 나눈다는 것, 삶이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나무 토요체육교실에서 월 새 없이 휠체어를 밀고 다녀 쥐가 난 장애우의 손을 따스하게 맞사지 해주는 귀한 섬김의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영화로 성경 읽기

〈사일런스〉, 침묵이 아닌 그분의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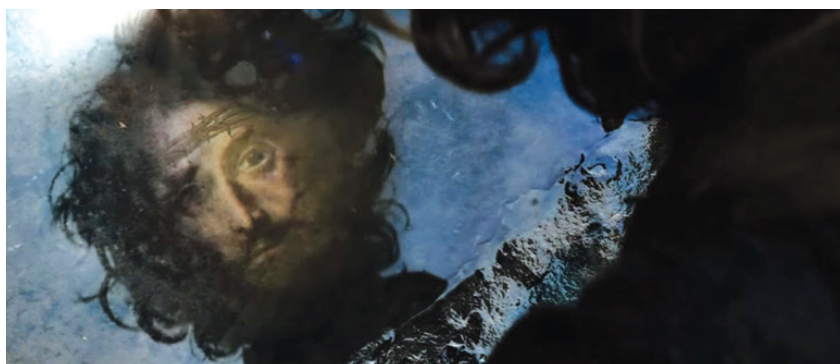
나는 진짜 기독교인인가라는 질문

자신이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든, 남에 의해서든, 성경에 의해서든 던져진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세파에 휘둘리고 온갖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때로 부조리한 세상을 거부할 수 없는 우리들로서야, 이 근본적 질문을 만나 선뜻 스스로를 긍정하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역으로 우리는 강하고 단순한 상징적 사건에 쉽게(깊은 생각 없이) 판단을 의탁한다.

예수님을 은화 몇 닢에 반역한 가롯 유다를 탓하고(어찌 예수님을 그 변변찮은 물질에 고변할 수 있단 말인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속으로 홍보고(나라면 그 자리에서 도망칠지언정 부인은 하지 않을 것이네), 부활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 보고서야 이를 믿었던 도마를 비웃는다(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못 믿을 수가 있담).

그렇다, 흔한 말로 남의 얘기 하기는 참 쉽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변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십자가에 달린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편하게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리 없다는, 정상적인 사람의 당연한 의심이 그렇게 비웃을 만한 일일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상징적인 사건을 별 다른 비판의 여지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그 순수함은 그러나 유년의 동화로 남아 있을 때 유효하다. 어른이 되어 우리가 처한 현실은 있을 법한 가상을 전제로 부담 없이 우리의 정의를 다짐하기에는 너



영화 〈사일런스〉 중에서

무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마틴 스콜세지의 〈사일런스〉와 엔도 슈사쿠의 〈침묵〉

영화 〈사일런스〉(2016)의 원작은 일본의 현대작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1966)이다.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일본 정부의 가톨릭 박해에 대항하는 포르투갈 신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다. 일찍이 일본에 가톨릭을 전파하여 상당한 신망을 얻었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로드리고와 가르페가 일본에 잠입하여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

가톨릭 선교가 일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여 포교를 금지하고 신자를 색출하려는 일본 관료 이노우에는 선교사의 배교를 통해 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원천봉쇄하려고 한다. 이미 기독교를 접한 바 있던 이노우에는 선교사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이 선교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순교자가 아닌 배교자를 만드는 쪽을 택한다.

페레이라 신부를 배교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미 가톨릭 선교사의 심리를 간파한 그는 로드리고에게도 동일한 시련을 부여하여 배교에 이르게 한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선교

사가 택할 당연한 태도일 것이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신도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여 갈등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 소설의 제목이 ‘침묵’이어서 이런 갈등에 처한 신부에게 아무 대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주제처럼 보이지만(그렇게 본다면 이 소설과 영화는 유다와 베드로의 단순한 배교 서사에 머물러 버렸을 것이다), 기실 그보다는 순교를 통해 육체적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명예를 얻는 일과, 배교를 통해 영원한 명예를 포기하고 몇몇 이름 없는 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보다 본질적인 주제가 아닐까. 감독 마틴 스콜세지는 1988년 이 소설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은 끝에 30년 가까운 준비를 통해 영화 〈사일런스〉를 만들었다.

교회의 껍데기를 벗어나야 보이는 진정한 신앙
그래서일까 이 영화는 거의 모든 면에서 원작 〈침묵〉을 거의 그대로 복원했다. 엔도 슈사쿠가 후에 〈침묵〉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페레이라 신부, 로드리고 신부, 가르페 신부, 이노우에, 심지어 배교와 반역을 밥 먹듯 하는 기치지로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 속에 있는 다양한 인격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고백했듯, 사실 이 모든 인물들은 동일한 시험을 받아 갈등하는 여러 우

리들의 다른 모습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과 영화 속에서 한없이 가볍게 출렁거리는 기치지로나 여우처럼 선교사를 쥐락펴락하는 이노우에조차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의 도플갱어에 다르지 않다.

기치지로는 말한다. “신부님 용서해주세요. 나는 약해요. 나는 모키치나 이치소우처럼 강한 자는 될 수 없어요.” 기치지로도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다면,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과 봉사를 잘 하고, 쉴 새 없이 성도들을 웃기는 성실한 신자가 되었을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러니 이 영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밟아도 좋다. 네 밭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라고.

이 영화를 봤다면,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율법에 어긋난다 하여 예수님을 끊임 없이 의심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에서 벗어나, 명예를 구하고 영웅이 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힘없고 가난한 자, 병들고 소외된 자, 자식을 잃고 비탄에 잠긴 사람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더욱 안타까이 여겼던 그분의 뜻을 되새겨야 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함글함글

〈영화로 성경 읽기〉는 우리가 보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영화는 2016년 발표된 〈사일런스〉 편입니다.

〉2면에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마10:9-10)라는 복음서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정해진 거처를 갖지 않았고 구걸로 연명하였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돌씩 맨발로 양털을 걸치고 거의 햇빛은 채로 다녔지만,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모든 것을 공유했으며, 햇빛은 그리스도를 햇빛과 따랐다.’고 한다.

발도파가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고, 박해받았던 주된 이유는 평신도 설교권 때문이었다. 제3차 라테란 공의회(1179)에 참석한 사제들은 설교가 성직자의 전유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발도파에게 지역 성직자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만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천명하였고, 이를 거부한 발데스는 1184년 베로나 교회회의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었다.

발도파의 순회설교자였던 바르바

[barba, 삼촌(uncle)이라는 뜻으로 로마가톨릭의 성직자에 대한 호칭인 아버지(father)와 차이를 두려고 택한 용어이다.]의 재판 기록을 보면, 발도파는 성서신앙의 근간으로 중시하고, 사제와 성인의 중재 역할 및 연옥을 거부하며, 교회의 부와 권력의 독점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사건들로 이단으로 규정된 발도파는 리옹에서 쫓겨나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후 가톨릭으로부터 수차례 참혹한 투옥과 고문, 화형 등의 박해들을 견뎌내야 했다.

박주영 전도사



발도파의 문장: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

청빙위원회 특집기사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2가지 ②

지난호에 이어, 10년 만에 맞는 담임목사 청빙의 과정을 맞아, 청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이는 청빙의 과정 자체가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고, 교회의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교인 각각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올해는 교회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교회가 가졌던 창립 정신을 새로 맞을 10년에 담기 위해서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교회의 표어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의교회가 기존 제도를 고수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를 앞서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이번 청빙의 과정 자체가 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래 내용은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뉴스앤조이, 2013)과 관련 자료를 발췌, 요약했습니다. **함울함울**

목차

- ①청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 ②좋은 목회자란 어떤 목회자인가요?
- ③한국 교회의 청빙 방식은 어떤 게 있나요?
- ④**청빙의 단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⑤청빙 과정을 위해 영성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 ⑥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는 까닭은요?
- ⑦미션스터디란 무엇인가요?
- ⑧청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게 좋을까요?
- ⑨청빙에 대해 교회법과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⑩청빙 과정에서 교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 ⑪청빙 과정에서 가려야 할 것과 밝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⑫청빙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4. 청빙의 단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청빙의 단계는 크게 준비단계, 본 단계, 결정 단계, 부임 단계로 이루어진다. 아래는 일반적인 교회의 바람직한 청빙 단계로, 주님의교회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준비 단계

이 단계에서는 이임하는 목회자와

의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의사 결정 체계의 확정, 교회의 진단, 목회자상의 정립, 청빙위원회의 구성, 평가와 선정 기준의 정립 등을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교인들의 영성 훈련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여, 청빙 절차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서 목회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지를 점검한다.

- 청빙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단계
준비단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어떤 목회자가 그 교회에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교인들의 공감이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고 어울려야 한다.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어딘지 어색하고 결국 그 옷을 벗어버리게 된다.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도 비슷하다. 아무리 좋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와 잘 맞아야 하고 어울려야 한다. 청빙을 받은 목회자도 행복해야 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좋은 목회자를 청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목회자에 대한 막연하고 이상한 신화를 버리고, 실제로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고 적합한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 교회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교회 공동체 모두의 논의와 합의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새 담임목사의 청빙과정은 단순히 한 목회자가 떠나고 다른 목회자가 그 자리를 메꾸는 기계적인 절차여서는 안 된다. 어떤 교회에서든 담임목사는 그 교회의 미래를 이끄는 지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교회의 미래에 어떤 목회자가 적합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주님의교회의 본질과 미래를 위해 하나님 이 주신 기회

주님의교회가 갖고 있는 특수한 제도는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다”라

는 교회 정체성의 지속을 위해 담임목사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지 그 제도가 교회의 미래 그 자체는 아니다. 창립 당시 주님의교회는 교회의 회복을 위한 개혁적 제도로 한국 사회에 훌륭한 모범을 제시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교회의 표어는 지금도 유효하다. 창립 30주년을 앞둔 지금, 주님의교회는 새롭게 참여한 교인들과 함께, 기존의 제도 위에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이번 청빙의 과정은 주님의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새로운 양상으로 미래에 구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된 민주적 절차
민주적 절차의 중요한 가치는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다수의 견해를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좋은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할 때 다수가 결정한 결과를 수용해야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다수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이다. 교회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소수의 견해, 외로운 진리의 길도 포용해야 한다. 소수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다수가 주장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에도 한 번 더 고려해 보도록 요청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런 점에서 논의의 과정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소수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다수의 무관심한 교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수의 교인과 방관하는 다수로 구성된다. 그렇다고 이 다수의 교인을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관하는 다수의 교인이나 아직 교회에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한 청년들도 청빙의 준비 단계를 통해 교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신앙 훈련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성 훈련을 통해 교회와 신앙에 대한 깊이를 확보하도록 하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들로 하여금 교회의 미래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성장하는 교회는 교회에 대한 애정과 참여도가 높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 교회 미래상에 맞는 담임목사의 요건 도출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의 미래상이 구체적으로 노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에 맞는 담임목사의 요건이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 사역을 교회가 미래에 감당할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정했을 경우, 청소년 목회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목회자를 다른 요건보다 우위에 두는 것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미래상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당연히 담임목사상도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게 되며, 결국 기대가 서로 맞지 않아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목회자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준비 단계가 형식적일 경우의 부작용
이런 준비 단계가 없거나 형식에 그칠 경우, 자의적이거나 비체계적으로 수집된 목회자상이 기계적으로 수합되어, 기재된 개별 요건이 서로 모순되거나, 지향점이 모호하거나, 내적 일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배포되어 교인의 소극적 동의와 기도를 구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동체에서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목회자의 선발이 이루어질 경우, 결국 대부분의 교인은 해당 목회자의 청빙 뿐 아니라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어떤 참여의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방관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다.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 역시 교회공동체의 지향성에 혼란을 느껴서 초기 목회활동의 방향을 잡기 어렵게 될 것이다. 청빙의 과정은 교회 공동체가 기쁜 마음으로 미래를 의논하며 축제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선물하신 좋은 기회이다. 전례가 없다 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속절없이 흘려보내는 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주님의교회로서는 펍 아쉬운 일이 될 터이다. > 다음 호에 계속

로렘나무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약사고시를 마치고 큰 아들은 제약회사에서 4개월간의 계약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국적 회사라서 그런지 건강검진 항목에 위 내시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기 계약직임에도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회사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큰 아들이 제게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악성 말트 림프종이 의심되어 큰 병원에 가야한 대요”.

오십 넘어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렀다고 자부하였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부랴부랴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트 림프종은 악성이기

는 하지만 헬리코박터균만 치료하면 큰 문제없이 좋아지는 착한 암이라는 구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암이라는 단어만 듣고 아내는 빈 쌀자루 쓰러지듯 무너졌습니다. 슬픔이 지나치면 신음소리가 노래가 된다는 걸 ‘아이고아이고’ 흐느끼는 아내의 애곡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1부 호산나 찬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성가곡 ‘예수 나를 오라 하네’를 매일 연습하며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찌르는 가사를 만났습니다. ‘크신 은혜 베푸시어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이번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 구절을 부를 때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불만스럽기도 했습니다. 크신 영광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구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대학병원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동안 아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새벽예배 나가 기도하고 내가 아는 목사님과 겨자씨 식구들 친지와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병원에 혼자 결과보러 간 아내가 울먹거리며 소식을 전합니다. “아무 이상 없대, 정상이라.” 첫 번째 진료가 오진이었는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기적이 일어난 건지 그건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다. 예수 나를 오라 하시니 이제 주저 없이 따라가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아직은 쌀쌀하지만 바람과 바람 사이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이리 따뜻하니 봄은 빨리 올 겁니다. 아내의 환한 미소 때문에 꽃망울이 더 빨리 피어날 겁니다. 기쁜 소식 듣고 기뻐해 줄 친구들과 지인들의 웃음소리로 인해 봄은 서둘러 올 겁니다. 기도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께 ‘주님께서 크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염인호 집사

유소년

봄을 깨우며



3월 5일 유소년축구가 개강하였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교회운동장에서 진행되며 매학기 100여명 아이들이 참가한다. 주일 오후 1시30분 호루라기의 힘찬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축구수업. 5세부터 초등6학년까지 100여명의 아이들과 11명 축구강사 교사들과 5명의 스태프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뛰는 모습은 언제나 활기차다. 1시간 넘게 뛰어다녀 발장게 달아오른 볼과 송글송글 맺힌 땀은 아이들의 건강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미처 이동하지 않은 차량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굴러간 공을 주우러 간 아이와 운행 중인 차량 사이에 아찔한 순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수업을 위해 성도님들의 도움과 이해가 필요하다.

함글함글

선교 이야기 4

선교 vs. 전도

선교와 전도

선교와 전도는 복음을 전한다는 뜻에서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도는 동일 문화권 내에서, 선교는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각각 전한다는 의미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 파송 수가 20,672명으로(한국 선교연구원, 2016. 1월 자료)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대국이다. 여름 방학 인천 공항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비전트립 혹은 단기선교를 떠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자가 많은데 가까운 데부터 복음을 전해야지 굳이 멀리 나가야만 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선교나 전도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방 선교의 시작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 성령 강림 후 폭발적인 선교가 시작되었지만 그 선교 대상이 주로 유대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셔서 타문화권 선교에 길을 여셨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조차 꺼려했던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열방이 예배를 통해 자신에게 영광돌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때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개신교 선교의 역사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일컬음을 받는 윌리엄 캐리는 18세기 말, 아무도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 홀연히 주변의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에 정착해 **해안선 선교 시대**

를 열었다. 이는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 시대**, 카메룬 다운센트와 도널드 맥가브란으로 대표되는 **종족선교 시대**로 이어졌다. 그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소개와 같이 여기며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결국 우리나라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것이다. **우리들은 복음에 빛진 자들** 이기에 당연히 선교를 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여섯분의 목사가 배출되며 1907년 최초 노회인 독노회가 결성되었는데 이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로 파송한 일이었다. 그 당시 제주도는 타문화권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 1913년에는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목사를 중국의 산둥성에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는 복음에 빛진 자로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과제

오늘날 10/40창이라고 불리는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의 지역에 아직도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존재한다. 이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의 후사가 될 자격이 당연히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인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최소한 이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선교와 전도 모두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충성된 종으로 헌신할 뿐이다.

해외선교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해외선교팀의 제공으로 12회에 걸쳐 선교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12단계

신, 구약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교회 12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성지순례가 2월 26일부터 12일간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스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12단계 성경공부의 마지막 여정으로 진행된 성지순례는 구약과 신약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된 장소를 찾아보고,

성경말씀의 실재성을 체험하여 말씀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목적이다.



베데스다 연못 - 빗물을 받아 저장하던 곳으로 예수님은 이 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통곡의 벽 -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가나안 혼인잔치 기념교회 - 가나안 혼인잔치 기념교회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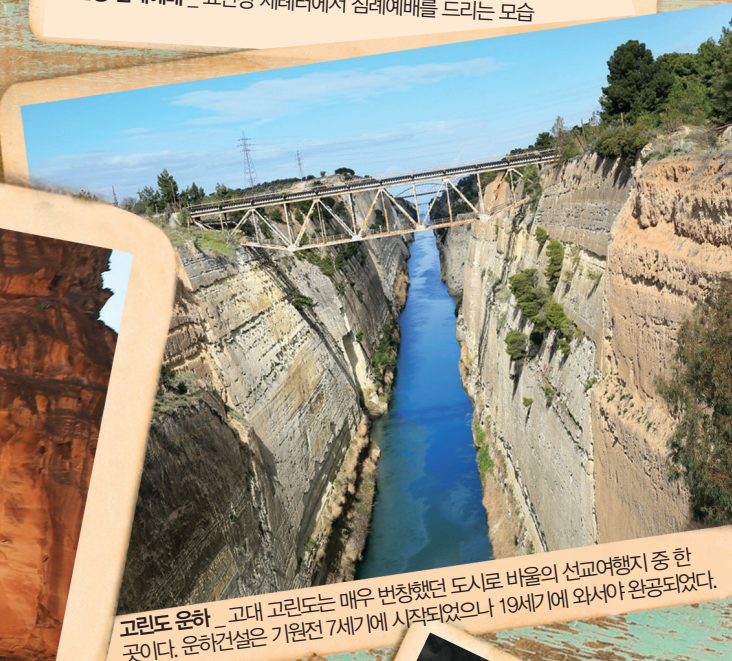
갯세마네 교회 -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갯세마네 등산의 바위 위에 세워진 교회로 12개국의 세계교회의 후원으로 세워졌다.



요단강 침례예배 - 요단강 세례터에서 침례예배를 드리는 모습



페트라 앞에서 - 베드로의 이름을 딴 페트라 유적지 앞에서



고린도 운하 - 고대 고린도는 매우 번창했던 도시로 바울의 선교여행지 중 한 곳이다. 운하건설은 기원전 7세기에 시작되었으나 19세기에 와서야 완공되었다.



십자가의 길 비아도로로사 성묘교회 - 십자가의 길 비아도로로사 성묘교회 -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기억하며 현재는 기도의 길이다. 이슬람 지구 내에 위치한다.

목회칼럼

낮아짐의 능력

어느 유명한 탐험가가 최신장비를 갖춘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요트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색 작업 끝에 한 해변에서 전복된 요트를 발견했고, 사고 원인이 조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가 엄청난 바람의 위력을 이기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면 아래쪽이 위쪽보다 훨씬 더 무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배의 바닥에 모래주머니나 무거운 짐을 싣는 데 이것을 ‘밸러스트(ballast)’라고 합니다. 그

런데 사고가 난 요트에서 밸러스트가 없어진 것입니다. 밸러스트가 없어지면서 배가 안정을 잃고 뒤집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밸러스트는 순풍이 불 때는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풍량이 일고 파도가 험하게 칠 때는 이것이 배의 안전을 지켜주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밸러스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늘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보이는 부분이나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 듯 해 보일지라도 영적인 무게가 낮은 곳으로 향하지 못한다면

위급한 순간에 우리의 신앙도 순식간에 밸러스트를 잃은 요트처럼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도 늘 낮은 곳을 향한 겸손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교만이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중의 하나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은 잘나고 지혜롭고 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제일로 꼽는 것도 바로 겸손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약 4:10)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가장 천박해 보였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영광 받으셔야 하고 가장 높으신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창화 목사

여전도회

봄 이야기 - 제3여전도회, 늘푸른대학 봉사를 하며

해마다 찾아오는 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봄을 맞이하는 마음은 새롭다. 보도블록과 담장 밑 틈새에 비집고 올라온 보라색 제비꽃을 무릎을 낮추고 들여다보면 그 연약한 꽃잎들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으로 “나 여기 있어요.”라고 속삭인다. 올해도 여김 없이 찾아오는 봄, 매월 둘째 주에 늘푸른대학 식사 봉사하러 교회에 가는 발걸음은 마치 여고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다. 정신여고 안에 교회가 있어서 그런지 교복을 입

던 여학생 시절과 뛰놀던 여고 교정이 더욱 생각나는 봄. 300명 이상 늘푸른대학 식사 배식과 설거지를 하는 시간은 늘 새로워진다는 것을 느낀다. 은혜로운 일을 할 수 있음에 몸을 움직이면 행복해질 수 있기에 봉사라는 말은 쉽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봉사를 마치면 우리들 자신들도 행복하고 뿌듯함에 늘 감사한다. 제 3여전도회는 교우들의 모임으로 매월 1회 복지관 봉사와 늘푸른대학 봉사를 하며 많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여 “주님 앞에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장혜숙 집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42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21)

한국인에게 인계



정신여학교 금강산 표훈사 수학여행. 1936년

1938년 11월 9일, 경성노회는 동창회와 협력하여 정신여학교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계할 재정이

거의 없으므로 독지가를 구하고자 했다.

1939년 4월, 윤치소(尹致昭), 경성

노회, 평양 숭실전문의 후신인 대동공업전문학교(大同工業專門學校) 설립자 이종만(李種萬)씨가 신청했다. 협상과정에서 이종만씨가 유력한 인계자가 되었다.

1940년 1월 20일, 미 북장로회선교부는 이종만씨의 1차 안을 거부하고, 2차 타협안으로 오년 동안 교사를 빌려주되 이씨가 원하면 5개년 더 연장해주겠다는 안도 거부했다. 그리고 3년만 대여하고 그 후에는 다른 곳으로 나가라는 회답 전보를 보내와 서울 선교지부는 이 뜻을 이종만에게 전달하였다.

이종만은 ‘될 수 있는대로 인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선교부에서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유감이며 인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리하여 지난해 4월부터 끌어오던 이종만과 정신여학교 인계 교섭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장차 3월 이후에는 선교부 보조가 끊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신여학교 한영진 교장은 선교부 보조가 교직원 월급을 보조해 주는 정도였으니 당장 폐교될 리는 없고 계속적 당한 인계자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아기나들이



권예담 아기

2016년 12월 28일생

1. 늘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2.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가꿔나가길 기도합니다.
3. 주님의 자녀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아빠 권혁민 / 엄마 박은지, 2017년 3월 26일 3부 예배



김건희 아기

2016년 11월 20일생

1. 온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2.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세요
3. 저희 가족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세요.

아빠 김상태 / 엄마 조운아, 2017년 3월 19일 3부 예배

사순절과 우리 가족

신앙간증 / 최이옥집사
(소년 2부교사)

3월 4일, 土, 오랜만에 단양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성년이 된 두 딸을 모두 데리고 여행가는게 수월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당일치기 여행은 봄을 맞아 쉼쉼 날아오를 만큼 기뻐했다.

무엇보다 방향하고 일탈 했던 둘째딸도 즐거운듯 보였고 그 모습이 모처럼 예뻐보였다. 그동안 둘째딸을 키워주는 마음과 함께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었는가. 기도응답이 늦어지자 용의 아내처럼 강박해졌다.

이번 여행은 그 강박함을 내려놓게 하는 계기였다. 얹이 얹이 되지 못하는 끈끈한 죄된 습성을 뒤엎으며 마음이 먹먹해왔다.

단양의 재래시장을 둘러보며 정식을 맛있게 먹고 고구마치즈도, 닭강정 등 간식도 샀다. 새한서점도 둘러, 산속 깊은 골짜기의 먼지를 못마냥 뒤집어 쓴 런 책도 몇권 샀다. 단양의 하천 주차장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하늘을 유영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봄기운에 취해있다.

주님! 남편도 올해부터 교사로 함께 섬기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바울의 가시도 은혜가 되었듯이, 내 삶의 가시도 주께 더 가까이 가는 물결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자숙의 시간을 차분히 갖게 하시니 평안이 밀물처럼 밀려와 나의 영혼을 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국내선교

국내 선교부 춘계 세미나

주님의교회 국내선교부 주관 1차 춘계세미나가 3월 18일 교회 제 3집회실에서 부장들과 팀원 및 선교관련 성도 20여명이 참여해 주님의교회 국내선교의 현주소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선교부 담당 최방은 목사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교회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서준규 장로는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밝히면서, 교회 리더십이 이행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선교 사역이 주님의교회 정체성과 잘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을 제시하였다. 이어 선한목자교회 한윤호 목사는 성도들의 선교 열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선교체험의 기회제공, 선교학교 수련회, 교육 등을 통해 성도들의 봉사정신을 고취시킬 필요를 강조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구제와 섬김의 수요를 예민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의 내용도 강조하였다.

함줄함울



해외선교

베트남어 기초반 10기 개강

주님의교회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베트남어 기초반 10기가 지난 3월 4일 개강하였다. 2012년에 1기로 시작한 베트남어 강좌는 베트남 비전트립 지원, 견습선교사 파견 대비,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의 취지에서 매년 2회 3월과 9월에 개설되고 있다. 본 강좌는 10주의 강좌로 청운대 교수이며 EBS수능 인강 강사인 이강우 집사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층 3집회실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다.

주님의교회 주 해외 선교지인 베트남 선교에 대한 교우님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매회 수강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송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섬기는 분들을 포함하여 베트남 선교, 베트남 언어 및 문화에 관심 있는 32명의 교우님들이 수강신청을 하여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해외선교부 동남아부

